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에 대하여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구성을 중심으로—*

정대식

— 차례 —

- | | |
|--------------------|----------------|
| 1. 들어가기 | 4.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
| 2. 선행연구 | 통합과 융합 |
| 3. 통합과 융합을 구별하는 기준 | 5. 마무리 |

〈버리〉

이 글은 한국어 형태소의 통합 현상과 융합 현상을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 언어 형식을 형태소로 규정하기 위해 형태·통사·의미의 측면을 두루 살폈는데, 이 글에는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 ‘의미’의 측면보다는 ‘형태’, ‘통사’, ‘문법 범주’ 등의 측면을 살피는 것이 형태소 분류에 더욱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형태소의 규정에는 언어 형식 내부의 문법 관계와 다른 언어 형식 간의 문법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습니다’와 ‘-습디다’의 관계에서 찾았다. 두 언어 형식의 의미 차이는 ‘-니-’와 ‘-디-’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습니다’와 ‘-습디다’를 복합 형태소 구성(통합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는 ‘의미’가 형태소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이 글은 저의 지도교수이신 최규수 교수께서 은퇴 후 건네 주신 개요에 제가 살을 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공동 저작물이 되어야 하나,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짧은 글로나마 사실을 밝히고 감사를 전합니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부족함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의 공부를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형태소를 규정하는 기준을 해당 어절이 지닌 구성 요소 간의 문법 관계와, 해당 어절과 이어지는 어절과의 문법 관계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언어 형식 ‘-기로’와 ‘-기에’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로’, ‘-기에’와 보조조사의 분포 관계, ‘-기로’, ‘-기에’와 이어지는 어절의 문법 관계에 따라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로’, ‘-에’로 분석되는 경우(통합형)와 한 개의 연결어미로 분석되는 경우(융합형)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고급 한국어 습득 수요자가 한국어의 교착적인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참고하여 비교연구의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트랜스-로컬’을 지향한다.

주제어: 형태소, 통합, 융합, 명사형 어미, 조사, 트랜스-로컬.

1. 들어가기

이 글은 통합과 융합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한국어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통합 현상과 융합 현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형태론 연구에서 형태소의 통합 현상과 융합 현상은 형태소 구분과 관련하여 익히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 주제는 언어 형식 ‘-서’와 관련하여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대부분 논의의 목적은 ‘-서’의 문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를 독립된 하나의 형태소 지위로 간주할 것인지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어 형식 ‘-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관계를 통합 현상과 융합 현상의 측면에서 살펴 보려 한다. 한국어는 후핵 언어이고, 내포절 어미와 조사가 선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착어 유형에 해당하여 어미와 조사의 통합 또는 융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두 범주가 모두 문장 형성에서 각각 문법적 또는 기능적 역할을 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 (1) ㄱ. [[그 소식을 듣고]는] 일본으로 갔다.
 ㄴ. [돋보기가 [아니-고는]] 글을 못 보셨다.
 (최규수 2019 : 794)

예를 들어 어미 ‘-고’와 조사 ‘는’의 통합과 융합은 (1)처럼 나타나는데, ㄱ에서는 조사 ‘는’이 선행절에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ㄴ에서는 조사 ‘는’이 선행 어미 ‘-고’에 융합되어 ‘-고는’이라는 새로운 어미의 모습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통합과 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한국어 명사형 어미와 조사를 대상으로 이를 구체화하려 한다. 또 해당 주제에 대하여 통시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데에 비해 공시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다루어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한국어 어미와 조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융합과 통합 현상의 개념을 명사형 어미와 조사를 통해 대상을 확장하여 바라보려 하며, 특히 고급 한국어 습득 수요자가 한국어의 교착적인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참고하여 비교연구의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트랜스-로컬’을 지향한다.

앞으로 2장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형태소의 통합 현상과 융합 현상의 기준을 마련한다. 4장에서는 ‘-기로’와 ‘-기에’가 어떤 경우에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로’, ‘-에’로서 분포하는지, 또는 하나의 연결어미로 분포하는지 살펴본다.

2. 선행연구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 현상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언어 형식 ‘-서’를 통해 주로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정목(1984 : 178)에서는 ‘-에’와 ‘-에서’를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서’가 통시적으로 ‘시+어’의 발달이라

는 점에 비추어 ‘-서’를 “‘N에’ 관련된 어떤 대상의 구체적 존재를 요구하는 후치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안명철(1985 : 480~481)에서도 이전까지는 ‘-서’를 선행성분에서 떼어내기 곤란하여 독립된 형태소로 다루지 못했다면서, ‘-서’가 그 특성이 분명하고 하나의 격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져 김건희(2012 : 109)에서는 “통시적으로 ‘있다’에서 기원한 [존재]의 의미를 바탕으로 특정한 문법적 맥락에서 쓰이는 ‘서’의 다양한 용례를 살펴보고 그 일관된 의미 기능을 포착하여 연결어미에 후행하는 ‘서’를 독립된 형태소로 규정”하였고, 송창선(2009, 2012)에서도 ‘서’를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보조사로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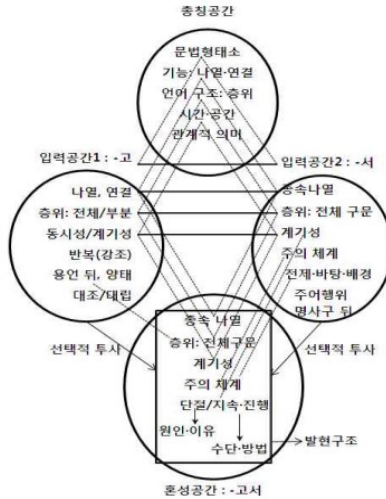
이처럼 ‘-서’를 독립된 형태소로 규정하는 것은 ‘-서’가 포함된 조사나 어미에서 ‘-서’를 분리하고, 예를 들어 ‘-에’ 등과의 통합 관계를 통하여 ‘-에서’라는 복합조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¹⁾

반면, ‘-서’가 선행 언어 형식과 함께 하나의 형태소를 이룬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윤평현(1992), 허웅(1995), 백낙천(2001), 고영근·구본관(2008), 김민국(2009), 김창섭(2010), 박호관(2012), 최규수(2014), 최규수(2018)가 그러하다. 이 중 특히 백낙천(2001)에서는 ‘-서’가 보조동사 ‘시+어’에서 나온 것이며, 선행 언어 형식과의 재구조화를 통해 ‘-에서’와 같은 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앞서 서정목(1984)과 유사한 시각을 지니면서도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눈에 띄는 논의는 박호관(2012)인데, 이 논의에서는 ‘-고서’

1)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임홍빈(1975), 김태상(1990), 백낙천(1999), 한용운(2005), 이정택(2009), 황화상(2009), 조현주(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정택(2009)에서는 ‘-이서’를 대상으로 다루었는데, ‘-이서’가 통합형과 융합형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를 융합형 연결어미로 간주하여, ‘-고’와 ‘-서’가 융합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그림 1> 박호관(2012 : 109)의 연결어미 ‘-고서’의
혼성 공간 통합 연결망

하지만 박호관(2012)에서 ‘통합’과 ‘융합’의 개념은 모호한 면이 있다. 그는 ‘-고서’를 융합형으로 설명하면서도 혼성 공간은 위 그림과 같이 통합적이라고 보아, 두 용어를 크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²⁾

2) 이처럼 통합과 융합의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지양(1993, 1994)에서는 융합을 “완전한 단어가 문법의 여러 부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형태론적 삭감과 축약이 일어나 의존단어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생략과 축약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전체를 융합이라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맞서다(마주서다), -란다(-라고 한다), 쓰여(쓰이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정의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융합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글의 통합은 형태소대 형태소의 관계로 각자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채 복합 형식이 되는 것이고, 융합은 복합 형식처럼 보이는 언어 형식이 하나의 형태소로서 단일 형식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상 대략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에 관하여서는 언어 형식 ‘-서’의 문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통합과 융합에 대한 논의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존재한다.

서태룡(1979 : 114)에서는 ““-기에’, ‘-으므로’는 접속어미로 다루어져 왔는데, ‘-기로’, ‘-으매’와 함께 이들 역시 명사화어미 ‘음’, ‘기’와 격어미 ‘에’, ‘으로’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에 비하여, 채완(1979 : 104)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상태동사는 ‘-기’ 명사화되지 않는데 ‘-기에’, ‘-기로’는 상태동사의 어간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명사화소 ‘-기’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여 ‘-기에’와 ‘-기로’를 ‘-기+조사’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서정섭(1989 : 315)에서는 ‘-기로’를 대상으로 통사의미적으로 살펴본 바, ‘-기로’가 내포문을 구성할 때에는 ‘명사화소 -기+격조사’의 구성으로, ‘-기로’가 접속문을 구성할 때에는 하나의 굳어진 형태로 파악하여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김천학(2005)에서는 ““-기에’와 ‘-기로’가 통사적 구성의 ‘-기’+‘-에’, ‘-기’+‘-로’에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고, 두 구성을 구분하여 문법화 과정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통사적 구성 ‘-기’+‘-에’와 연결어미 ‘-기에’의 구별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이다.

(2) 김천학(2005 : 49)의 통사적 구성 ‘-기’+‘-에’와 연결어미 ‘-기에’의 구별

<형태적 기준>

‘-기’+‘-에’: 뒤에 보조조사(-는, -도, -만, -야)를 연결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와 함께 연결되지 않는다.

‘-기에’: 뒤에 보조조사(-는, -도, -만, -야)를 연결할 수 없다. 선어말어미 뒤에 연결될 수 있다.

<통사적 기준>

‘-기’+‘-에’: 후행 동사가 처격을 지배한다.

‘-기에’: 두 개의 주어 서술어 관계를 요구한다.

<의미적 기준>

‘-기’+‘-에’: ‘-는 것에’로 바꿀 수 있다.

‘-기에’: ‘-기 때문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위 기준 중 몇 가지의 기준을 만족해야 통합형 또는 융합형이 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이다. 한편, 이러한 기준 설정이 무색하게 본문에는 ‘-기에’가 ‘이유’의 의미를 지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장 중요한 구분 근거로 삼는다.³⁾

이상 전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 현상은 형태, 통사, 의미의 관점에서 두루 다루어지고는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스스로가 지닌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형태와 분포, 통사 범주의 측면에 집중하여 형태소를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최규수(2019 : 796)에서 말하듯이 “‘고서’와 ‘어서’를 각각 한 형태소(융합형)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의 의미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라는 언급은 의미가 형태소를 분류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기에’, ‘-기로’ 등의 ‘-에’와 ‘-로’ 격조사는 보조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지는 않아서 더욱 형태·통사적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본문에서는

3) 이 외 ‘-기로’, ‘-기에’와 관련된 통시적인 연구로 안주호(1999)를 참고할 수 있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로’, ‘-기에’와 같은 명사형 어미와 조사가 이어진 형식의 문법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본다.

3. 통합과 융합을 구별하는 기준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형태소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문법에서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 정의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 높임의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에 ‘-습니다’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습디다’라는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언학(2006 : 319)에 따르면 ‘-습니다, -습니까, -습니디, -습디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 (3) 가. -습^ㄴ이다 > -습니다
- 나. -습^ㄴ잇가 > -습니까
- 다. -습^디이다 > -습디다
- 르. *-습^디잇가 > -습디까

이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습-’이 상대 높임으로 변하고, ‘-ㄴ-’와 ‘-이-’, ‘-디-’와 ‘-이-’가 융합하면서 ‘-니-’와 ‘-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대국어에서는 ‘-니-’와 ‘-디-’가 계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습니다’와 ‘-습디다’는 과거 ‘-습^ㄴ이다’와 ‘-습^디이다’가 갖는 의미 차이를 계승하게 되고 두 언어 형식이 지니는 서로 다른 의미는 곧 현대국어에서 ‘-니-’와 ‘-디-’의 차이에 따른 것이 분명해서 ‘-니-’와 ‘-디-’는 각각 개별적인 “의미를 지닌 최

소의 단위”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면 현대국어에서 ‘-니-’와 ‘-디-’는 독립된 형태소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곧 ‘-습-’, ‘-니-’, ‘-디-’, ‘-다’는 모두 개별 형태소이고, ‘-습니다’와 ‘-습디다’는 복합 형태소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습니다’와 ‘-습디다’가 하나의 형태소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가 예상하던 바와 <표준국어대사전>이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형태소가 단순히 “의미를 지닌 최소의 단위”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 개 이상의 형태소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언어 형식을 복합형 또는 융합형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언어 형식의 의미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문법 관계, 그리고 그것들과 다른 언어 형식의 문법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일반화하여 기준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준

- ㄱ. ‘[[_Y[_X[A] B] C] # D’의 구조에서, A와 B, C, X, Y의 범주와 기능을 설정할 때, A와 B, C 사이의 관계 및 그것들과 D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A와 B, C 사이의 관계나 그것들과 D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들은 각각 한 형태소로 분석한다.
- ㄷ. A와 B, C 가운데 어느 하나나 둘 또는 셋을 별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없으면, 각 경우에 따라 AB 또는 BC, ABC를 한 형태소로 분석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각 언어 형식의 관계를 문법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독립된 형태소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시 ‘-습니다’와 ‘-습디다’를 기존의 예상처럼 분리

된 복합 형태소 구성으로 가정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언어 형식을 통해 문장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다’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결의 어말어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습-’과 ‘-니-’는 ‘-다’와의 문법 관계를 고려할 때, 어말어미보다 선행적으로 먼저 분포하는 선어말어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어 선어말어미 체계 속에는 ‘-습-’과 ‘-니-’를 적절히 포함할 범주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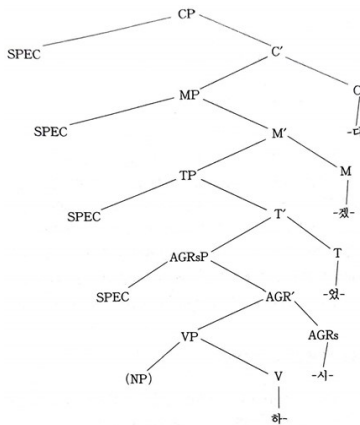
한국어 선어말어미 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높임, 시제, 서법 범주이다. 예를 들어 서민정(2007)에서 제시하는 동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5) 서민정(2007 : 53)의 동사 형판

0	1	2	3	4	5
줄기	시	었	겠	더	다, 라, 은, 는, 기, 음 등
	∅	∅	∅	∅	

이와 유사하게 유동석(1995)의 동사 구조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

(6) 유동석(1995 : 35)의 동사 구조



위의 예를 보면 선어말어미들은 보통의 동사 내부 구조에서 높임, 시제, 서법의 범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습-’과 ‘-니-’는 아마도 스스로가 지닌 속성으로 보아 높임이나 시제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듯하지만, 시제와 서법 형태소의 일반적인 분포를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인다.

(7) ㄱ. 칠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ㄴ.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위의 예를 보면, ‘-습-’과 ‘-니-’는 시제 형태소 ‘-었-’과 서법 형태소 ‘-겠-’보다 선형적으로 나중에 분포하는데 이들을 높임과 시제의 형태소라고 보면 한국어의 일반적인 높임과 시제 선어말어미의 분포 순서에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습-’과 ‘-니-’, 또는 ‘-습니-’를 선어말어미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모든 선어말어미 분포와 관련된 논의가 이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연구에 따른 범주의 종류나 순서에 큰 변화는 없어서⁴⁾ 여전히 ‘-습-’과 ‘-니-’를 포용할 수 있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습니다’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를 보면, 특정 언어 형식에 개별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해당 언어 형식의 독립된 형태소 지위 부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는 형태소 분석 기준을 요약해 보면 첫째, 복합 형식으로 가정되는 구성은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고려하여 대조함으로써 둘 이상의 형태로 분석하되, 둘째, 분석된 형태는 반드시 통사적 분포와 기능에 부합하는 문법

4) ‘-으시-’, ‘-었-’, ‘-겠-’, ‘-더-’의 순서가 고정된 한국어 선어말어미의 특성상 항상 ‘-습니다’에 선행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범주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⁵⁾ 그리고 이는 곧 언뜻 보기에 복합 형식으로 보이지만, 형태소 분석 기준과 위의 설명에 따라 분석되지 않는 언어 형식은 융합 형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몇 가지 다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8) 가. 아주머니, 할머니, 아주버님
- 나. 고래잡이
- 다. 어르신

위의 예에서 가은 계열 관계를 통해서 ‘-머니’와 ‘-버님’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분리한다면 선행하는 ‘아주’와 ‘할’의 문법적 지위를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주머니’, ‘할머니’, ‘아주버님’은 복합 형식처럼 보이지만 따로 분석되지 않는다.

나은 ‘고래’와 ‘-잡이’로 분리할 것인지 ‘고래잡-’과 ‘-이’로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만약 후자로 분리한다면 ‘고래잡’은 언어 형식의 형태상 동사 어근이 되어야 할 듯하지만, ‘고래잡다’라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래잡-’은 독립된 형태소의 지위가 아니며 곧 ‘고래잡-’과 ‘-이’로 분리할 수 없다.⁶⁾

5) ‘-습-니-다’와 ‘-습-디-다’의 분석은 이 점에서 형태소 분석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

6) 한 심사위원께서 ‘고래잡이’가 ‘고래-잡이’로 분석되지 않고 ‘고래잡-이’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젓먹이’가 ‘젓먹-이’로 분석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단어는 성격이 다르다. ‘고래잡이’의 접미사 ‘-이’는 ‘잡-’을 단순히 명사화하는 명사형 접미사이지만, ‘젓먹이’의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고래잡이’는 ‘(고래를) 잡는 일’을 뜻하지만, ‘젓먹이’는 ‘(젓을 먹는 때의) 그러한 사람’을

ㄷ은 높임의 형태소 ‘-으시-’를 고려하여 굳이 분리해 보자면 ‘얼-으시-ㄴ’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시 ‘얼-’과 ‘-ㄴ’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하여 이들을 분리할 수 없다.

즉 이들은 모두 통사적 분포와 기능에 부합하는 문법 범주를 상정할 수 없는 예인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형태소의 성립은 언어 형식 간의 문법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는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4)의 A와 B, C의 범주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대상인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구성에서 A는 서술어이고, B는 명사형 어미이며, C는 조사이다. 그리고 이 구성에서의 논점은 ‘어미+ 조사’가 복합 형식(통합형)인가, 독립된 하나의 형태소(융합형)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뜻하여 중심되는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괄호 속의 성분을 주목하라. ‘고래잡이’의 ‘고래’는 목적어이지만, ‘젓먹이’의 ‘젓먹-’은 ‘-이’를 수식하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고래잡이’의 ‘-이’는 어휘적 의미가 없어서 ‘잡이’로서 단어의 중심 의미를 형성하지만, ‘젓먹이’의 ‘-이’는 그 자체로 ‘사람’이라는 어휘적 의미가 있어서 스스로가 중심 의미를 형성한다. 이를 고려하면 두 단어의 내부 구조는 당연히 달라야 한다. 다만 이때 ‘젓먹다’라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젓먹-’을 동사 어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근을 위해 한국어에는 특수어근(또는 불완전어근)이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름답다’의 ‘아름’과 같이 문법적으로 지위가 불분명한 언어 형식이 어근의 역할을 하면 특수어근이 된다. ‘아름’과 같은 언어 형식들은 어근의 정의를 감안하면 어근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단어에는 어근이 없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의 속성과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맡은 역할을 고려하여 ‘아름’에 어근의 지위를 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젓먹-’은 일반적으로는 어근으로 쓰이지 않지만, 스스로의 속성과 ‘젓먹이’라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맡은 역할을 고려하여 어근의 지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래잡이’는 다르다. ‘고래잡이’는 이러한 특수어근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가능한데, 굳이 특수어근의 개념을 가져와 설명할 이유가 없다.

는 어미와 조사의 문법적 특징, 그리고 두 범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4.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통합과 융합

용언의 명사형은 당연히 격조사와는 물론이고 보조조사와도 자유로이 결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 명사형 어미가 이루는 어절은 일반적인 체언의 구조를 따른다. 한국어 체언의 구조를 대략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한국어 체언의 구조

$$\begin{array}{c} \langle \text{품사}, \quad \quad \quad \text{격조사}, \quad \text{보조조사} \rangle \\ \left\{ \begin{array}{l} \text{체언} \\ \text{용언의 체언형} \\ \text{부사의 체언형}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주격} \\ \text{대격} \\ \text{공동격} \\ \text{장소격} \\ \text{도구격} \\ \vdots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은/는} \\ \text{도} \\ \text{만} \\ \text{조차} \\ \text{이라도} \\ \vdots \end{array} \right\} \end{array}$$

그러나 용언의 명사형에 격조사 ‘-로’와 ‘-에’가 결합하는 형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러한 체언의 구조를 바탕으로, 명사형 어미와 조사가 결합하는 구조를 살피기 위해 용언의 명사형과 보조조사의 분포 관계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대상 언어 형식을 분석하는 기준

- ㄱ. 보조조사의 삭제 가능성
- ㄴ. 보조조사끼리의 교체 가능성
- ㄷ. 다른 보조조사와의 통합 여부
- ㄹ. 어미로 형성된 언어 형식의 범주적 특성
- ㅁ. 보조조사의 범위 관계 정보의 해석 가능성

위 보조조사 분포를 중심으로 아마도 ‘-고는’, ‘-어도’, ‘-고서는’, ‘-어서는’, ‘-어서도’ 등의 연결어미는 주로 ㄱ과 ㄴ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금희(2012 : 231)에서는 ‘-다가는’, ‘-고는’, ‘-어서는’, ‘-고서는’을 다루면서 보조조사 삭제와 관련하여 구별해야 하는 예들이 있다고 하여 아래를 제시하였다.

- (11) ㄱ.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는, ∅) 잠이 들었다.
 ㄴ. 이런 도로에서 과속하다가(는, ?*∅) 사고가 나겠다.
- (12) ㄱ. 오빠는 나에게 책을 던지고(는, ∅) 나가버렸다.
 ㄴ. 일을 하지 않고(는, ?*∅) 한 푼도 벌 수 없을 것이다.
- (13) ㄱ. 어머니가 쌀을 씻어서(는, ∅) 밥을 안쳤다.
 ㄴ. 시험장에 일분이라도 늦어서(는, ?*∅)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 (14) ㄱ. 그는 장가를 가고서(는, ∅)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ㄴ. 개가 아니고서(는, ?*∅)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체언과 자유로이 분포할 수 있고, 그 분포가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조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보조조사 분포의 차이는, 형태적으로는 같은 언어 형식인 ‘-다가는’, ‘-고는’, ‘-어서는’, ‘-고서는’이 분포하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 다른 형태소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 (15) 돋보기가 아니고(는, *∅) 글을 못 보셨다.

게다가 (15)를 보면 보조조사의 분포가 분명히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한 경우에는 ‘-고는’이 융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로’, ‘-기에’는 ㄱ과 ㄴ을 포함하며 동시에 (10)ㄷ, ㄹ, ㅁ이 함께 다루어진다. 먼저 ㄷ을 통해, 즉

서로 다른 보조조사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살펴 해당 언어 형식을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게’에는 일반적으로 보조조사가 분포할 수 있는데(16ㄴ), 선행절의 연결어미로 쓰일 경우에는 보조조사가 분포할 수 없다(16ㄱ).

- (16) ㄱ. 철수가 밥을 마저 먹게(*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는 했다.

그리고 (10)ㄴ에 따라 어미로 형성된 범주적 특성에 따라서도 보조조사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

- (17) ㄱ. 맥주 한 잔 하기로(는) 최고이다.
ㄴ. 타의 모범이 되기로(*는) 이에 표창함.

(17)ㄱ은 ‘-기’로 형성된 언어 형식이 체언이어서 보조조사의 분포가 허용되지만, (17)ㄴ은 ‘-기’로(정확히는 ‘-기로’로) 형성된 언어 형식이 접속문의 선행절이어서 보조조사의 분포가 불가능하다. 이어서 (10)ㄴ의 보조조사 범위 관계 정보는 그것이 결합하는 언어 형식의 범주에 따라 정보의 해석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여 (10)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보조조사와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어절과의 문법 관계, 선어말어미와의 분포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로’와 ‘-기에’가 지니는 문법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1.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로’의 통합과 융합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의미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언어 형식을 융합형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형으로 보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예를 들어 ‘-기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18) ㄱ. 까닭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시 말해,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로’의 기본적인 의미와는 달리 ‘-기로’의 형식이 (18)과 같은 의미를 지니면 그것을 융합형으로 간주한다.

- (19) ㄱ.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하기로] 최고이다.
 ㄴ. 내가 [추측하기로] 절대 아니다.
 ㄷ. 야생동물이나 꿈을 [만나기로] 유명한 난코스이다.

- (20) ㄱ.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로] 이에 표창함.
 ㄴ. 아무리 [바쁘기로] 네 생일을 잊겠니.
 ㄷ. 아무리 그가 [좋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따라서 (19)처럼 ‘까닭이나 조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로’의 통합형으로 간주하고, (20)처럼 ‘까닭이나 조건’의 의미를 지니는 ‘-기로’는 융합형으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만 앞서 ‘-습니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만을 중시한다면 온전한 형태소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4)의 기준처럼 A와 B, C 사이의 문법 관계, 그리고 이들과 D와의 문법 관계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위의 예에 기초하면 ‘-기로’에서 A는 동사 어간이 될 것이고, B는 ‘-기’, C는 ‘-로’이다. 여기에 더하여 보조조사가 분포한다고 보면 D는 보조조사이다.⁷⁾ 그런데 (19)의 ‘-기로’와 (20)의 ‘-기로’는 보조조사와의 분포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 (21) ㄱ. 나는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로(는, 도, 만) 했다.
ㄴ. 내가 추측하기로(는, 도, 만(은)) 절대 아니다.

- (22) ㄱ. 아무리 바쁘기로(*는, *도, *만) 네 생일을 잊겠니.
ㄴ. 아무리 그가 좋기로(*는, *도, *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곧 (19), (21)의 ‘-기로’는 보조조사와 자유로이 결합하는데 비하여, (20), (22)의 ‘-기로’는 보조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기로’가 갖는 보조조사와의 문법적·의미적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이것은 (4)의 A와 B, C, 그리고 또 다른 D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⁸⁾ 한국어에서 ‘-기로’와 관련된 체언의 구조 뒤에는 서술어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 (23) ‘-기로’ # 서술어
ㄱ.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하기로] 최고이다.
ㄴ. 내가 [추측하기로] 절대 아니다.
ㄷ. 야생동물이나 곰을 [만나기로] 유명한 난코스이다.

위의 예를 보면 (19)에서 ‘-기(B)로(C)’에 이어지는 D는 각각 ‘최고이다’, ‘아니다’, ‘유명하다’ 등으로 서술어가 이어진다. 하지만 (20)는 서술어가 이어지지 않고, 다른 절이 시작된다.

- (24) ‘-기로’ # 절
ㄱ.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로], (단체에서는) 이에 표창을 함.
ㄴ. 아무리 [바쁘기로], (내가) 네 생일을 잊겠니.
ㄷ. 아무리 그가 [좋기로],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7) 곧 여기에서는 [[[_X [_Y [A] B] C] D] # E의 구성이 된다.

8) 여기에서는 [[[_X [_Y [A] B] C] # D의 구성을 말한다.

(24)을 보면 이 경우의 ‘-기(B)로(C)’에 이어지는 D는 각각 ‘단체에서는’, ‘내가’, ‘네가’ 등의 또 다른 체언으로, 새로운 절의 주어로 이어진다.

두 경우를 문법 관계에 따라 고찰하면, 서술어에 선행하는 ‘-기로’의 ‘-로’는 조사로 분리할 수 있다. 체언과 서술어의 문법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조사의 분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절의 주어에 선행하는 ‘-기로’는 어미 ‘-기’와 조사 ‘-로’를 분리할 수 없다. 새로운 절의 주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문장이 접속문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행절 어미에 격조사가 이어 분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로’를 격조사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의 ‘-기로’는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로’의 복합 구성(통합형)으로 판별되며, (20)의 ‘-기로’는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로’의 융합 구성(융합형)으로 판별된다. 이를 괄호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ㄱ. 내가 [[추측하기]로] 절대 아니다.

ㄴ. 아무리 [바쁘-기로], 네 생일을 잊겠니.

4.2.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에’의 통합과 융합

‘-기에’와 관련된 논의도 ‘-기로’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6)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곧 형태소 분류에서 다시 ‘의미’만은 중시한다면 ‘-기에’가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에’가 지니는 기본적인 의미와는 달리,

(26)의 의미를 지니면 융합형으로 간주될 것이다.

(27) ㄱ. 겉으로 [보기에] 단단하다.

ㄴ. 내가 [보기에] 잘생겼다.

ㄷ. 겨울에 [하기에] 딱 좋습니다.

(28) ㄱ. 반가운 손님이 [오셨기에] 맨발로 달려 나갔다.

ㄴ. 어제는 어디를 [가셨기에] 왜 그렇게 뵈 수가 없었어요?

ㄷ. 훗날 말썽이 [없어야겠기에] 우선 언니 집에 짐을 풀었다.

따라서 (27)처럼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지 않는 ‘-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에’의 복합 구성(통합형)으로 간주하고, (28)처럼 ‘원인이나 근거’를 일관되게 나타내는 ‘-기에’는 융합 형식(융합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적인 근거만으로는 통합형과 융합형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 ‘-습니다’의 예에서 보았듯이 의미만으로는 통합형으로 판단되나, 문법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융합형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에’도 마찬가지로 A와 B, C, D(여기에서는 보조조사)의 상관 관계를 포착해야 한다.

(29) ㄱ. 겉으로 보기에(는, 도, 만) 단단하다.

ㄴ. 내가 보기에(는, 도, 만) 잘생겼다.

ㄷ. 겨울에 하기에(는, 도, 만) 딱 좋습니다.

(30) ㄱ. 반가운 손님이 오셨기에(*는, *도, *만) 맨발로 달려 나갔다.

ㄴ. 어제는 어디를 가셨기에(*는, *도, *만) 왜 그렇게 뵈 수가 없었어요?

ㄷ. 훗날 말썽이 없어야겠기에(*는, *도, *만) 우선 언니 집에 짐을 풀었다.

위의 예를 보면 (29)의 ‘-기에’에는 보조조사의 결합이 자유로운데 비해서 (30)의 ‘-기에’에는 보조조사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29) ‘-기에’와 보조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의미 관계와 (30) ‘-기에’와 보조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의미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하여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로 형성된 절의 범주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기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조조사는 ‘-기로’가 구성하는 체언에는 자유로이 분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9)의 ‘-기에’는 보조조사가 자유로이 분포하여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에’의 통합형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0)의 ‘-기에’는 보조조사가 자유로이 분포할 수 없는데 이는 이 형식이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로’로 구성된 체언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은 또다시 (4)의 A와 B, C, 그리고 또 다른 D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어에서 ‘-기에’와 관련된 체언의 구조 뒤에도 서술어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31) ‘-기에’ # 서술어

- ㄱ. 겉으로 [보기에] 단단하다.
- ㄴ. 내가 [보기에] 잘생겼다.
- ㄷ. 겨울에 [하기에] 딱 좋습니다.

위의 예에서 (27)의 ‘-기에’에 이어지는 언어 형식은 ‘단단하다’, ‘잘생겼다’, ‘좋다’ 등의 서술어이다. 그러나 (28)의 ‘-기에’는 서술어가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절이 이어진다.

(32) ‘-기에’ # 절

- ㄱ. 반가운 손님이 [오셨기에] (나는) 맨발로 달려 나갔다.

- ㄴ. 어제는 어디를 [가셨기에] (내가) 왜 그렇게 뵈 수가 없었어요?
- ㄷ. 훗날 말썽이 [없어야겠기에] (나는) 우선 언니 집에 짐을 풀었다.

(32)를 보면 이 경우의 ‘-기에’에 이어지는 언어 형식은 각각 ‘나는’, ‘내가’, ‘나는’으로 새로운 절의 주어가 이어진다.

이러한 두 경우를 문법 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서술어에 선행하는 ‘-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에’로 분리할 수 있다. 이때 ‘-기’는 선행 언어 형식을 체언으로 전성하는 역할을 하는 명사형 어미이며, 이러한 체언과 서술어의 문법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격조사 ‘-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절의 주어에 선행하는 ‘-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와 조사 ‘-에’로 분리할 수 없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접속문의 선행절 어미에 격조사가 후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에’는 ‘-기로’와는 달리 선어말어미와의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33) ㄱ. 겉으로 보(*았, *겠)기에 단단하다.
 - ㄴ. 내가 보(*았, *겠)기에 잘생겼다.
 - ㄷ. 겨울에 하(*았, *겠)기에 딱 좋습니다.
- (34) ㄱ. 반가운 손님이 오시(었, 겠)기에 맨발로 달려 나갔다.
 - ㄴ. 어제는 어디를 가시(었)기에 왜 그렇게 뵈 수가 없었어요?
 - ㄷ. 훗날 말썽이 없어야 하(겠)기에 우선 언니 집에 짐을 풀었다.

보통 선어말어미 분포의 차이는 보통 어말어미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다 먹은 밥’은 ‘밥을 과거에 먹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때 과거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 ‘-은’에 있다. 이에 따라

‘먹은’은 어말어미에 이미 시제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먹었은’, ‘*먹겠은’과 같이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속성의 선어말어미가 분포할 수 없다.

이를 위의 예에 대입하여 보면 (33)의 ‘-기’가 지닌 시제 정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33)의 ‘-기’와 (34)의 ‘-기’가 서로 시제에 대해 다른 문법 정보를 지닌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34)의 선행절의 선어말어미 분포는 ‘-기’의 문법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33)을 통해 보면 ‘-기’는 선어말어미 분포가 불가능하므로), 융합에 의해 다른 문법 정보를 지니게 된 융합형 어미 ‘-기에’의 문법 정보에 의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⁹⁾

따라서 (27)의 ‘-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에’의 복합 구성(통합형)이며, (28)의 ‘-기에’는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 ‘-에’의 융합 구성(융합형)이다. 이를 괄호 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5) ㄱ. 겉으로 [[보기]에] 단단하다.

ㄴ. 반가운 손님이 [오셨-기에] 맨발로 달려 나갔다.

5. 마무리

이 글은 어떤 언어 형식이 통합 형식인지 융합 형식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래서 먼저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융합 형식임을 확인하는

9) 조어법의 융합 합성어가 구성 요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것처럼 융합형 어미도 구성 요소와는 다른 새로운 문법 정보를 지닐 수 있다.

기준을 설정하였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준을 요약하면, 복합 형식으로 가정되는 어절은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고려하여 대조함으로써 둘 이상의 형태로 분석하되, 분석된 형태는 반드시 통사적 분포와 기능에 부합하는 문법 범주를 가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형태를 어떤 종류의 형태소로도 분석할 수 없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복합 형식으로 보이지만, 형태소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되지 않는 형식은 융합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기로’와 ‘-기에’가 명사형 어미와 격조사로 분석되는 경우와 한 개의 연결어미로 분석되는 경우를 살폈다. 이 논의는 비록 대상을 ‘-기로’와 ‘-기에’로 삼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합 형식으로 보이는 형태소들, 예를 들어 ‘-께서’, ‘-에서’, ‘-에게서’, ‘-으로서’, ‘-이서’ 등의 ‘-서’와 관련된 형태소의 통합과 융합, 그리고 ‘-고는’, ‘-아도/어도’ 등의 통합과 융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건희. 2012. 「연결 어미 ‘-고서, -아서/어서, -(으)면서’에 나타나는 ‘서’의 의미기능」, 국어학 65. 국어학회. 109~155쪽.
- 김민국. 2009. 「‘-이서’의 분포와 문법범주」, 형태론 11(2). 형태론. 335~356쪽.
- 김창섭. 2010. 「조사 ‘이서’에 대하여」, 국어학 58. 국어학회. 3~27쪽.
- 김천학. 2005. 「연결어미 ‘-기에’와 ‘-기로’의 형성에 관한 고찰」, 형태론 7(1). 형태론. 45~60쪽.
- 김태상. 1990. 「접속어미 {-어}와 {-어(서)}」, 문화와 융합 11. 문학 과학언어연구회. 85~109쪽.

- 박호관. 2012. 「융합형 연결어미 ‘-고서’의 의미 기능 분석」, 우리말 글 56. 우리말글학회. 89~115쪽.
- 백낙천. 1999. 「접속어미 목록 설정과 관련한 몇 문제」, 동악어문학 34. 동악어문학회. 143~164쪽.
- 백낙천. 2001. 「동사구 구성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고서’, ‘-어서’, ‘-으면서’, ‘-고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151~170쪽.
- 서민정. 2007. 「‘토’의 통어적 기능을 위한 문법체계」, 언어과학 14(3). 한국언어과학회. 43~61쪽.
- 서정목. 1984. 「후치사 ‘-서’의 의미에 대하여—‘명사구 구성의 경우’—」, 언어 9(1). 한국언어학회. 115~186쪽.
- 서정섭. 1989. 「‘-기로 하다’구문과 ‘-기로서니’에 대하여」, 국어문학 27. 국어문학회. 295~316쪽.
- 서태룡. 1979. 「내포와 접속」, 국어학 8. 국어학회. 109~135쪽.
- 송창선. 2009. 「보조사 ‘서’의 의미 특성 (1)」, 언어과학연구 50. 언어과학회. 121~144쪽.
- 송창선. 2012. 「보조사 ‘서’의 의미 특성 (2)」,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353~376쪽.
- 안명철. 1985. 「보조조사 ‘-서’의 의미」, 국어학 14. 국어학회. 478~506쪽.
- 안주호. 1999. 「‘-기’형 연결어미 ‘-기에, -길내, -기로’의 특성과 문법화 과정 = 20세기 초기 국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24.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87~211쪽.
- 유동석. 1995. 『국어의 매개변인 문법』. 한국문화사.
- 윤평현. 1992. 「국어의 시간관계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언어 17(1). 한국언어학회. 163~202쪽.
- 이금희. 2012. 「조건을 나타내는 ‘-다가는, -고는, -어서는, -고서는’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 8(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27~250쪽.
- 이정택. 2009. 「두 종류의 ‘-이서’」, 한말연구 25. 한말연구학회. 221~242쪽.
- 이지양. 1993. 「융합의 과정과 성격」, 성심어문논집 14·15. 성심어문학회. 85~133쪽.

- 이지양. 1994. 「어휘화된 융합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16. 성심어문학회. 79~113쪽.
- 임홍빈. 1975. 「부정법{어}와 상태진술의 {고}」, 국민대학교 논문집 8(1). 국민대학교. 13~36쪽.
- 정언학. 2006. 「통합형 어미 "-습니다"류의 통시적 형성과 형태 분석」,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317~356쪽.
- 조현주. 2011. 「'이서'의 문법 범주」, 국어학 61. 국어학회. 435~453쪽.
- 채완. 1979. 「명사화소(名詞化素)'-기' 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95~107쪽.
- 최규수. 2014. 「한국어 용언 접속형의 문법 정보 표시 방법」, 우리말연구 38. 우리말학회. 45~71쪽.
- 최규수. 2018. 「'이서'의 범주를 확인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 한글 322. 한글학회. 829~855쪽.
- 최규수. 2019. 「접속어미와 보조조사의 통합과 융합에 관하여」, 한글 326. 한글학회. 793~822쪽.
- 한용운. 2005. 「형태소 '서'의 독립 조사 설정 문제」, 어문연구 33(3). 한국어문교육학회. 7~28쪽.
-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황화상. 2009. 「이서의 문법적 기능과 문법 범주」,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1~27쪽.

정대식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소속·직위: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누리편지: dsmail@pusan.ac.kr

<Abstract>

On the Combination and Fusion of Morpheme
—focusing on the nominalizing ending “-ki” and “Josa”—

Jeong Dae-sik

This article examines the phenomena of morpheme combination and fusion in Korean, focusing on the noun ending ‘-ki’ and ‘Josa’. In existing research, a linguistic form was defined as a morpheme by considering aspects of form, syntax, and meaning.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aspect of ‘meaning’, it is more crucial to examine aspects such as ‘form’, ‘syntax’, and ‘grammatical categories’ when classifying morphemes. In other words, the definition of a morpheme should adequately account for both grammatical relationships within the linguistic form and the grammatical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linguistic forms.

This study found th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imnita’ and ‘-siptita’. While it is clear that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linguistic forms comes from ‘-ni-’ and ‘-ti-’, this does not mean that ‘-simnita’ and ‘-siptita’ are combined morphemes structure. This proves that ‘meaning’ is not a decisive factor in defining morphemes.

Accordingly, in this text, the criteria for regulating morphemes are examined based on the grammatical relations among the constituent components inherent to the language form, as well as the grammatical relations with subsequent language forms, and applied to the analysis of ‘-kiro’ and ‘-kie’. As a result, based on the distributional relationships between

‘-kiro’, ‘-kie’ and postposition of Delimitation, and the grammatical relations with subsequent words,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cases where the nominalizing ending ‘-ki’ and the Josa ‘-ro’, ‘-e’ are analyzed as combined forms, and cases where they are analyzed as a fused forms.

This study is ‘trans-local’ in the sense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a comparative study by referring to the phenomena that advanced Korean learners encounter in the agglutinative language features of Korean.

* **Key words:** Morpheme, Combination, Fusion, Nominalizing ending, Josa, Trans-Local.

〈논문 받은 날: 2024. 6. 27. (수정본) 2024. 8. 17.〉

〈심사한 날: 2024. 7. 18. ~ 8. 1. (재심) 2024. 8. 22~ 8. 29.〉

〈심기로 한 날: 2024. 9. 11.〉